

# 서울시 공공 공연장 활성화 전략

2012. 4. 2 제112호

백선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 목 차 〉

### 요약

- I. 공공 공연장의 확충과 시민의 요구
- II. 서울시 공공 공연장 운영 실태와 한계
- III.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요 약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서울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지역문화와 문화복지 강조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이 급속히 확충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이끈 것은 공공 공연장으로, 2000년 이후에 공공 공연장의 70% 이상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시설건립에 치우친 공연장 정책으로 공공 공연장의 비효율적 운영과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 공연장이 지역문화 형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전략 수립과 관련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시설건립에 치우친 공연장 정책으로 공공 공연장 간 운영격차 발생

서울시 공공 공연장은 도심권과 서초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공연장이 소재하지 않는 자치구도 존재한다. 공연장 정책이 시설건립에 치우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연장이 운영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구립 공연장 간의 운영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 공연장의 운영격차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양한 운영주체이다. 시립 공연장의 경우 설립주체의 목표에 따라 공연장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 그러나 구립 공연장의 경우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운영주체로 나뉘는데, 전문인력이 확보된 지역문화재단보다는 경영평가에 좌우되는 관리공단 위탁운영의 경우 공연장으로서의 전문적 운영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운영주체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대/기획/교육분야 전문인력을 고루 확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다목적 공연장의 비중이 높고, 창작과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점 등은 공공 공연장의 전문적 운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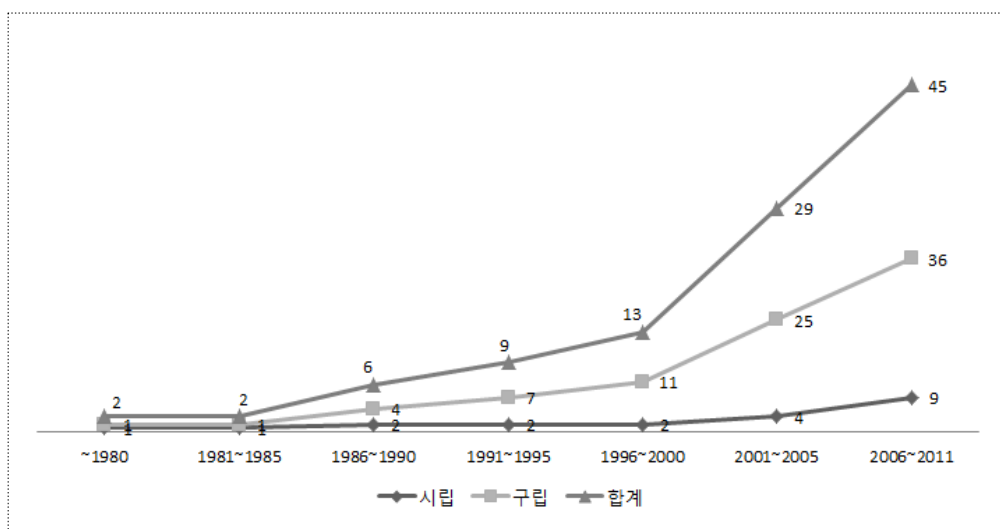
### 공공 공연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거버넌스 구축과 공연장 특성화 전략 필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공 공연장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지역간 격차가 도출되고 있다. 공연시장의 양극화, 공연장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시민의 문화적 기대치 상승 등 환경변화는 공공 공연장이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특히 일본 공립문화시설의 1/3이 시민의 외면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 공연장에 대한 특별한 기준 없이 시설확충에 집중하였으며, 개별 공연장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공공 공연장의 균형적 발전과 운영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공연장들의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공동기획과 마케팅 등 공공 공연장 간의 연대를 통한 공동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공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공공 공연장 간의 양적, 질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체계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객정보 통합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 공연장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공연장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주단체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 건립 이전에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공 공연장 확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 I. 공공 공연장의 확충과 시민의 요구

###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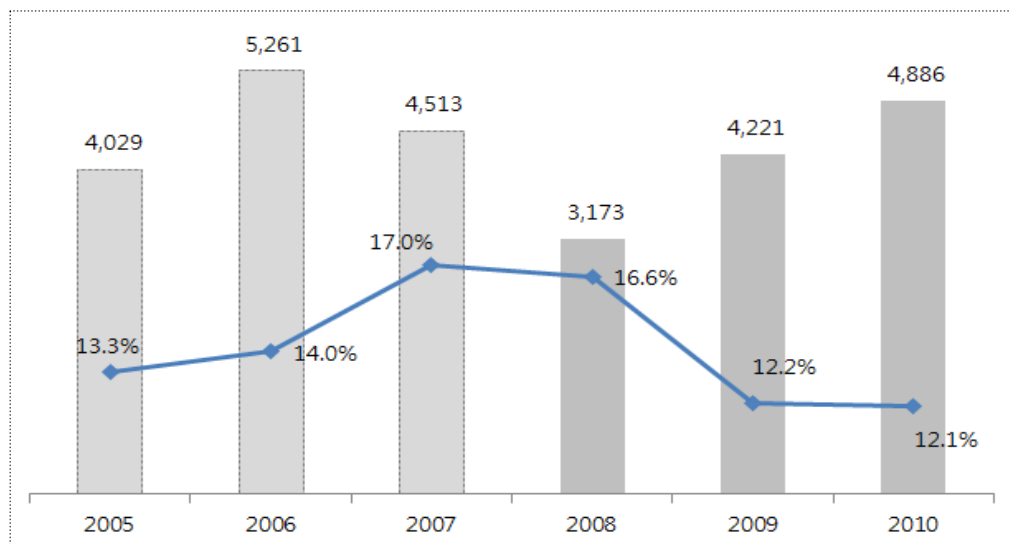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공공 공연장이 폭발적으로 증가
  - 2011년 현재 서울시에는 총 225개의 등록 공연장이 소재
    - 공공 공연장 81개소, 민간 공연장 144개소로 2000년에 비해 1.3배 증가
    - 공공 공연장은 300석~1,000석 미만의 일반공연장을 중심으로, 민간 공연장은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증가
  - 서울시 공공(시립/구립) 공연장의 70% 이상이 2000년 이후 개관
    - 구립 공연장의 경우 2000년 11개소에서 2011년 36개소로 3.3배 증가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서울시민의 문화수준 향상, 지역 문화와 문화복지 강조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이 확충
    - 시설수와 규모 면에서 공공 공연장은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선도



[그림 1] 서울시 시립/구립 공연장 증가현황

□ 서울시민 예술관람률을 이끌지 못하는 공공 공연장 확충

- 공공 공연장 확충과 공연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예술관람률은 하락 경향
- 서울지역 공연건수는 2008년 3,173편에서 2010년 4,886편으로 54% 증가한 반면, 서울시민의 예술관람률은 2007년 17%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콘서트와 뮤지컬 중심의 대형공연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공연 공급주체와 소비의 양극화 발생(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하반기 공연예술경기동향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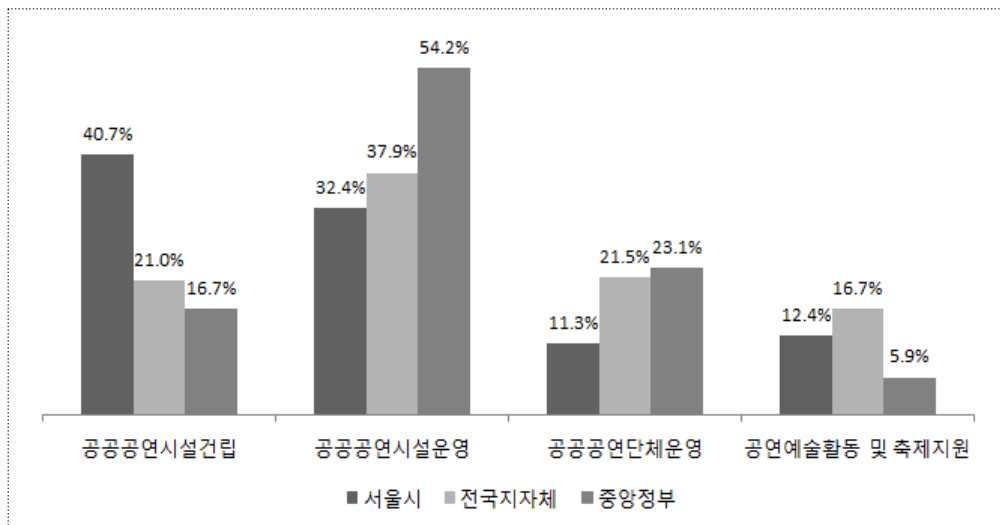
주 : 2008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표준화작업이 이루어져 2005~2007년의 공연건수는 집계방식이 상이함.  
 자료 : 서울서베이(각년도);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각년도).

[그림 2] 서울시 공연건수와 예술관람률

□ 시설건립에 치우친 공연장 정책으로 운영과정에서 편차 발생

- 서울시의 공연예술예산 중 시설건립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연예술예산은 1,403억원으로 중앙정부의 1,477억원과 유사한 수준

- 그러나 공연예술예산 비중에서 시설건립예산이 571억원으로 40.7%를 차지하여, 전국 지자체 평균이나 중앙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중앙정부의 경우 시설운영에 54.2%, 공연단체 운영에 23.1%를 배정하여 시설건립보다는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조적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공연예술실태조사」.

[그림 3] 공연예술예산 항목별 비중 비교(2010)

## 생활밀착형 공연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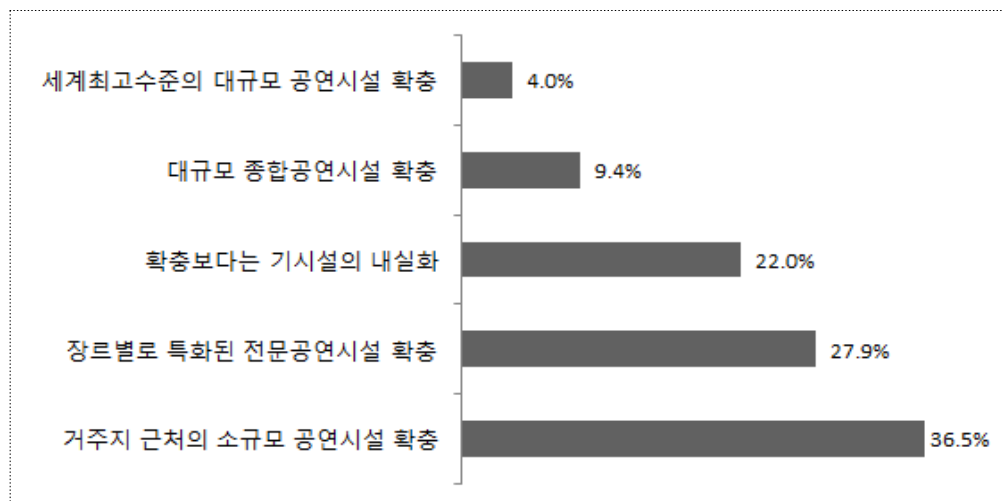
- 현대의 공공 공연장은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수행 필요
  - 공공 공연장의 전통적 기능은 공연예술의 창작과 유통센터
    - 전문적인 예술창작품을 제작·보급하는 예술시설로 공연예술 발전에 기여
    - 자생력이 떨어지는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필요
  - 문화민주주의의 확대로 지역문화 창조의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
    - 문화민주주의적 가치의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 강조로 지역주민

을 위한 문화예술 창조활동과 발표의 장으로 기능 확대

- 지역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교류의 장으로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거점

□ 서울시민은 생활밀착형 공연시설 확충을 가장 많이 요구

- 서울시민의 36.5%가 거주지 근처에 소규모의 공연예술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
-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크며, 생활밀착형으로 활용 가능한 구립 공연장의 역할이 강조됨.
- 서울시민은 서울시보다 자치구 차원에서 문화환경과 문화복지를 밀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립 공연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대규모 또는 세계 최고수준의 공연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음.
- 서울시민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시설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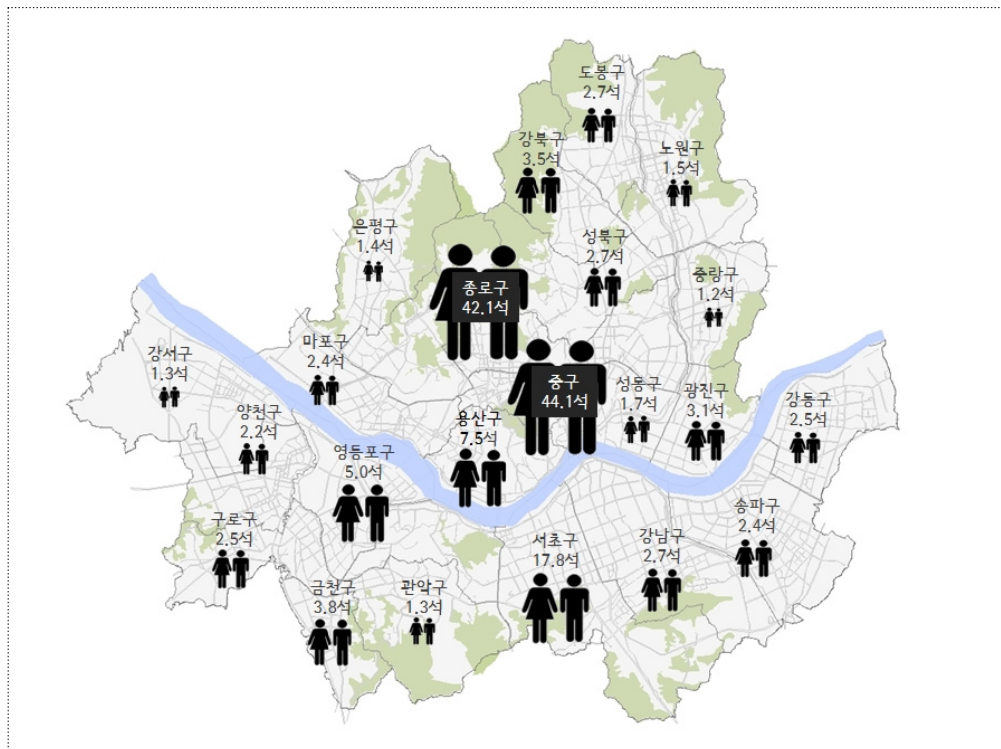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민의 공연시설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 II. 서울시 공공 공연장 운영 실태와 한계

###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지역적 편중과 운영격차 심각

#### □ 공공 공연장의 지역적 편중

-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인구 1천명당 객석수는 4.1석이며, 도심권과 서초구에 집중
- 중구 44.1석, 종로구 42.1석, 서초구 17.8석, 용산구 7.5석, 영등포구 5.0석 순이며, 그 외의 모든 구는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인구 1천명당 객석수가 특히 많은 중구, 종로구, 서초구에는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극장,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등 대형공연장이 입지하고 있는 반면, 공연장이 없는 자치구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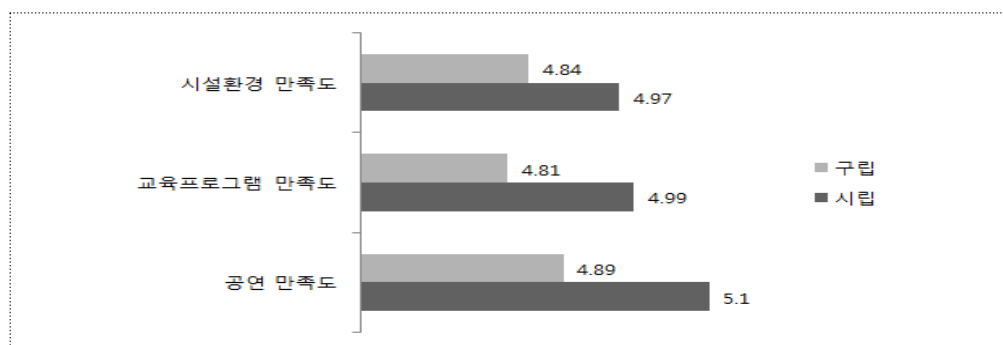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공공 공연장 인구 1천명당 객석수

- 공연장이 그때그때의 요구에 의해 확충되어온 경향이 있음.
- 서울시에는 '1자치구 1문예회관 설립' 이외에는 공공 공연장 확충과 관련된 특별한 기준이 없음.
-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책임과 의무는 각 지자체에 있으므로, 공연장 설립과 운영을 서울시에서 유도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 시립 공연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구립 공연장

- 시민의 문화환경만족도는 2006년 19.8%에서 2010년 41.9%로 크게 증가
  - 특히 문화예술인프라에 대한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
  - 공연장 방문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서울시의 문화적 환경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그러나 시립 공연장에 비해 구립 공연장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준
  - 시립 공연장의 공연, 교육프로그램, 시설환경 만족도 평균은 5.02점인데 비해 구립 공연장은 4.85점
  - 자치구의 문화환경과 문화복지 충분성도 4.03점으로 서울시 4.34점보다 낮게 평가



[그림 6] 서울시 공공 공연장 만족도 비교(7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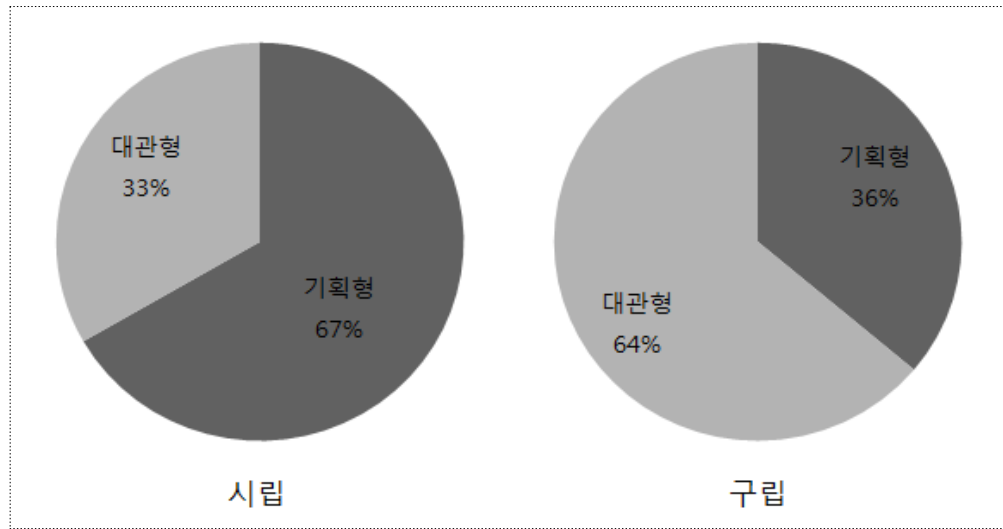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 간 공연장 운영격차 심각

- 서울시 구립 공연장의 총이용자수 평균은 194,112명, 연간운영비 평균은 26억 8,814만원임(문화체육관광부, 「2010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 그러나 총이용자수는 12,519명부터 978,770명(78배)까지, 연간운영비는 3억 7,196만원부터 106억 1,453만원(29배)까지 편차가 나타남.
- 또한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예술시설 이용률(2010년)은 5.5%부터 21.8%까지 편차 극심

□ 특히 구립 공연장은 기획형 공연장 부족으로 프로그램 차별화에 실패

- 시립 공연장은 기획형이 67%이며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 제공
  - 시립 공연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하고 모두 기획형으로 운영
  - 특히 서울패션아트홀, 서울남산국악당, 삼청각, 아트홀 봄 등은 각각 패션, 전통공연, 아동/부부/가족심리극 등으로 공연장르가 특화
- 구립 공연장의 경우 64%가 대관형이며, 기획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공연장르의 특화를 찾아보기 어려움.
  - 관리공단 운영의 경우 74%가 대관형으로 운영하여, 문화재단 37%, 직영 57%에 비해 압도적으로 대관형 비중이 높음.
  - 공연장르가 특화된 공연장은 광화문아트홀(전통연희), 충무아트홀(뮤지컬), 강동어린이회관(어린이), 도곡2문화센터(연극) 정도
  - 일부 공연장은 결혼식 등 기타 행사를 위한 대관이 주 업무



[그림 7] 서울시 공공 공연장 운영프로그램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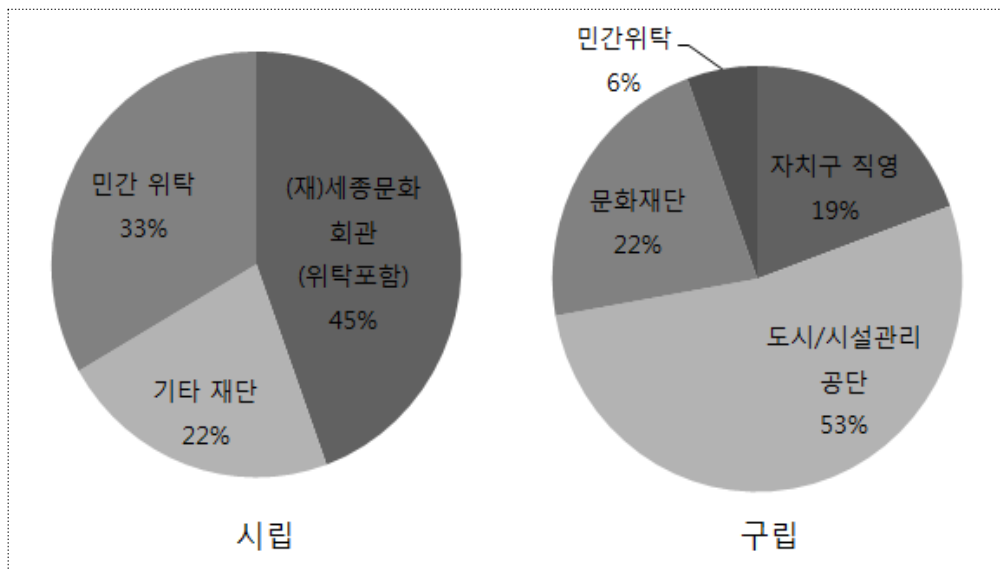
## 다양한 운영주체가 공공 공연장 간 운영 격차를 야기

### □ 공공 공연장의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상이한 이해관계 발생

- 시립 공연장의 경우 설립주체의 목표에 따라 공연장 운영의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연장 운영 전문법인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여 세종문화회관 및 3개 시설의 운영을 담당
  - 그 외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각 재단의 운영목표에 특화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특화
- 구립 공연장의 경우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운영주체가 결정되는 경향
  - 구립 공연장 36개소 중 53%에 달하는 19개소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됨. 이 경우 시설관리 및 수익성의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공연

장의 공공성이나 지역문화창출 등을 성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자치구가 직영하는 경우는 문화체육과나 문화시설팀, 공연기획팀, 구민회관팀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되나,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조직의 규모가 다름. 또한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한계
- 자치구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우 문화사업팀, 공연전시사업팀, 교육문화사업팀, 예술문화팀 등으로 업무분장이 구체적임. 또한 공연장 운영과 지역문화예술활동 진흥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그림 8]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운영주체

- 공연장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인력의 편차가 가장 근본적 문제점
  - 공연장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대/기획/교육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
  - 시립 공연장의 경우 전문인력만도 60명에 달하는 세종문화회관이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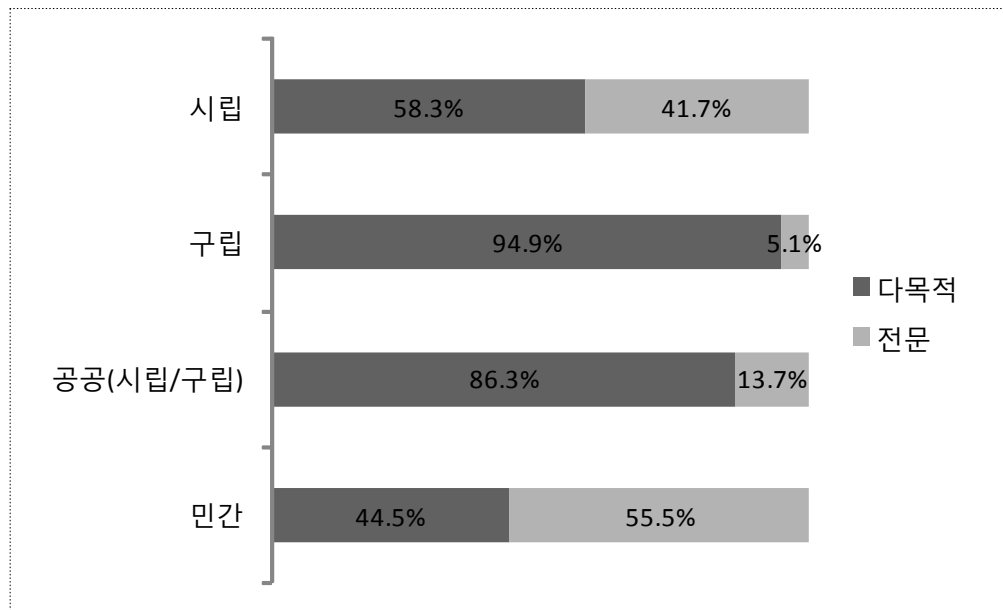
을 발휘하고 있음.

- 구립 공연장의 경우 무대인력 58%, 기획인력 47%, 교육인력 50% 정도의 확보율을 보임.
- 구립 공연장 중 분야별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17%에 불과
- 자치구 문화재단 운영 공연장들의 경우 전문인력이 고루 배치
- 상대적으로 자치구 직영의 경우 3개 분야 인력을 모두 확보한 곳은 전무

## 공공 공연장의 질적 차별화를 어렵게 하는 구조와 프로그램

### □ 공공 공연장의 프로그램 차별화를 어렵게 하는 설계구조

- 공연장은 장르에 따라 무대구조와 시설, 규모 등이 매우 상이
  - 민간 공연장의 경우 55.5%가 특정 장르를 위한 전문 공연장으로 설계
  - 반면 공공(시립/구립) 공연장의 경우 13.7%만이 전문 공연장으로 설계됨. 특히 구립 공연장은 2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목적 극장으로 설계
-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설건립부터 하고 보는 경향 때문
  - 공연장 시설건립 이전에 운영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법적 규정이 없음. 건설기술관리법과 지방재정법상 요구되는 기본구상과 타당성분석 및 재정투·융자심사에서는 시설의 운영에 대한 준비를 규정하지 않음.
  - 개관 직후 구조변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다목적홀의 부적절성 때문에 '무목적홀' 또는 '타(他)목적홀'이라는 비판도 대두



[그림 9] 서울시 공연장의 설립유형

#### □ 공공 공연장의 창작과 교육기능 미흡

-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82%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연장의 특성과 연계되지 못한 경우가 다수
  - 68%는 일반 문화소양교육으로 구민회관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등과 구별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특히 공단위탁 운영 공연장의 80%가 일반 문화소양교육 운영
- 36%에 해당하는 16개소 공연장만이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거점으로 활용됨.
  - 창작거점으로서의 활용은 공연장의 고유 콘텐츠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
  - 일부 공연장에서는 상주단체가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 Ⅲ.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공공 공연장의 균형적 발전으로 지역문화 형성의 거점 마련

- 공공 공연장의 연대의식과 공동대응으로 운영 활성화
  - 시설건립 위주의 문화정책으로 공연장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공공 공연장 운영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못함.
  - 특히 자치구 공연장의 프로그램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운영 주체의 다양성으로 편차가 심화
  - 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 지역문화 형성 거점으로 공공 공연장의 재탄생이 더욱 요구됨.
  - 개별 공연장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기획과 마케팅 등 공동의 전략적 대응 모색이 필요
  - 공연시장의 양극화, 재정지원 감소, 시민의 문화적 기대치 상승 등 환경 변화로 공공 공연장이 안주할 수 없는 상황
  - 우리의 공공 공연장과 유사한 운영형태를 가진 일본의 공립문화시설은 2,600개 중 1,000여 개가 운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림.

#### □ 주요 추진전략

| 주요 과제                    | 추진전략   |
|--------------------------|--|
| 공공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와 공동전략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공연장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li> <li>- 관객DB 통합구축 및 관리</li> </ul>           |
| 공공 공연장 특성화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li> <li>- 상주단체지원제도 개선</li> </ul>                   |
| 공공 공연장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장 건립 이전에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li> <li>- 서울시 공공 공연장 확충 마스터플랜 수립</li> </ul> |

## 공공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 구축과 공동전략 추진

□ 서울시 공공 공연장 간의 양적, 질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필요

- 공공 공연장 간 문화거버넌스 형성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고무적이나 실천단계에서 한계에 봉착

· 2007년 (사)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서문연)가 설립되어 공공 공연장 간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기관이 13개 공연장에 불과해 제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이 미흡하여 활동에 제약

· 서대문문화회관과 은평문화예술회관, 마포아트센터가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삼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 창출은 미흡

· 최근 세종문화회관 주도로 자치구 공연장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공연장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확대할 수 있는 구심점 형성

· 세종문화회관이나 서문연이 실질적인 공연장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화가 필요

· 서울시 공공 공연장 극장장의 정례미팅을 통해 공동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관객DB 통합구축 및 관리

- 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관리시스템이 필수적

· 이용고객 거주지와 선호 장르 분석을 포함한 관객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

- 일부 공공 공연장에서 회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정보수집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보안관리에 취약한 문제점 발생
- 특히 대부분의 공공 공연장이 열악한 운영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회원정보의 관리와 분석은 큰 부담
-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 공연장 회원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 필요
  - 공공 공연장 통합매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관리시스템을 연동
  - 공공 공연장 관객을 통합관리하고 DB구축 및 분석을 통해 개별 공연장들과 정보를 공유
  - 공연수요 예측 및 공연장 관리(공연장 정책지원 결정여부, 지역별 공연장 특성화 전략 등)에 활용 가능
- 민간의 티켓판매사이트와 전략적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e-문화복덕방이나 서울문화재단의 Arts@Net 등에서 공연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리비용의 문제로 충실한 정보 관리와 업데이트에 한계
  - 민간의 공연티켓판매사이트와 업무협약을 맺어 공공 공연장 정보제공과 예약서비스를 일괄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는 관객DB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것도 한 방법

## 공연장 특성화 전략

### ☐ 공연장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 공공 공연장의 프로그램 차별화 실패로 관객 유치경쟁이 필연적



- 약 86%의 공공 공연장이 다목적 공연장으로 운영 중이고, 무대 형태나 규모도 유사한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어려움.
- 관객은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대다수의 공공 공연장이 관객을 놓고 소모적인 경쟁에 돌입
- 순수예술분야를 육성하는 것도 공공 공연장의 의무이나, 현재와 같은 경쟁적 상황에서는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상업적 장르에 치우치는 경향
- 공연장 특성화 계획을 수립한 자치구에 인센티브 부여
  - 서울시가 실시하는 자치구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의 평가항목에 공연장 특성화 사업계획 반영
  - 반경 5~10km 정도의 권역 내 공공 공연장들이 무용, 연극, 음악 등 장르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에서 운영비나 구조개선비 등을 지원
  - 상주단체와 연계한 자체콘텐츠 개발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공연장에는 가산점 부여

#### □ 상주단체지원제도 개선

- 서울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상주단체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2개 공공/민간 공연장에 상주단체를 지원
  - 예술단체에게는 안정적인 창작활동의 기반 제공
  -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고유콘텐츠 확보와 이를 통한 극장 활성화 유도
- 상주단체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속사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장 필요
  - 최소한 4년 정도는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

### 도록 예산 지원

- 재원확보가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를 소단위 광역권으로 나누어 매칭하는 방법도 가능. 즉 소단위 광역권으로 묶인 공연장들에 1개의 상주단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상주단체 선정과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공연예술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상주단체 선정과정부터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 상주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연장여부 결정. 이에는 공연건수나 교육활동수 등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획성, 지역문화형성 기여도 등 질적 평가도 포함되어야 함.

## 서울시 공공 공연장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 공연장 건립 이전에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 운영계획 없는 공연장 설립이 가장 큰 문제
  - 공연장은 운영방향에 따라 조명, 음향 등 설비에서만도 막대한 예산과 차이가 발생하지만, 구체적 운영계획 없이 설립한 후 구조변경 등으로 추가적 예산 낭비
  - 서울시 공공 공연장들이 건립된 지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도달했으므로, 리모델링 계획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 단계
- 공공 공연장 운영기본계획 수립 제도화
  - 공공 공연장 운영조례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연장 건립(또는 리모델

링) 이전에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

- 운영계획의 내용에는 공연환경 및 인근 지역 공연장 운영현황,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운영목표와 장르 설정, 인력/공연/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재정계획 등이 포함

#### □ 서울시 공공 공연장 확충·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시 공공 공연장 확충·관리체계 미흡
  - 자치구 차원에서도 문화기반시설 중 공연장 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객관적 기준이 없어 혼선 야기
  - 공연장 확충이 그때그때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시설 중복의 문제나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
- 서울시 공연장의 현황과 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객의 수요와 범위를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공연장 확충과 관리의 기준 제시
  - 신규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내실화 계획도 포함
  - 공공/민간 공연장 분포현황과 장르배치, 자치구별 객석수, 예술관람률, 문화단체수, 타공연장 근접도, 시설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연장이 입지한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과 공연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연장 운영모델 제시

백선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94

seonbaik@sdi.re.kr